

# 사 설

## 조계종 새 집행부에

지난해 말 일어난 조계종 사태는 전체 종단을 위시한 사부대중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

아니, 불교계뿐만 아니라 온 국민에게 떠안긴 정신적 공황은 더욱 심대하다. 불교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과정에서 퇴락하고 소실되어 가는 전통적 가치의 보루가 아니었던가. 그런데 그 여파는 등불이 절망과 방황, 각목과 화염병 속에서 빛을 잃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절망은 이르다. 진흥에서 연꽃이 피어난다고 했다. 이전투구의 아수라장을 덮고 조계종의 새 총무원장이 선출되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패자의 흔적은 승복이 그동안의 절망을 다독여 준다. 느낌이 좋다.

10일 제29대 총무원장 취임법회도 치렀고, 새 집행부의 진용도 갖추어졌다. 새 총무원장을 위시해 집행부가 떠나가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 찢겨진 대중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서로 다른 이해집단의 화합과 결속을 도모하는 것이 급하다. 그러나 포용과 용서만이 능사는 아니다. 최대한 화합의 기초를 유지하는 가운데 이번 사태의 책임을 정확하게 묻고, 상벌을 엄정히 해야 한다. 그래야만 여법하지 않은 권승들이 종단운영을 기우거리는 폐단을 막을 수 있다. 이 참에 빌미가 된 선거와 조직에 관한 법률도 합리적 절차와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쳐 손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은 승종의 진작이다. 권승들의 난장이 한창일 때도 한편에선 청정한 수행의 기풍이 퇴색하지 않았다. 이 점에서 한국불교만큼 명암이 뚜렷한 전통은 다시 없다. 불법 정거가 한창일 때 어느 텔레비전은 서양의 눈부른 남자들이 만행과 정진을 위해 이 땅을 찾는 것을 비추었다. 그 장면이 가슴을 꼭 쓸어낸 사람이 한둘이

아닐 것이다. 한국불교의 희망이 거기에 있다. 수행과 법력으로 다져진 권위가 힘을 얻을 때 종단의 분규 또한 잦아들 것이다.

다음으로 사찰의 재정문제이다.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 여기에 있는 만큼 새 집행부는 당분간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모든 지혜를 모아야 한다.

선의 전통은 본래 철저한 자립을 근간으로 한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一日不作 一日不食)"가 선의 규율이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자력과 독립이 아니라 의존과 지원에 생존을 맡기고 있는 형편이다. 선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상은 정토이다. 이 과리가 현금의 갈등과 분규의 진원지라면 지나칠까.

급속한 경제성장의 여파로 시주가 풍부해졌고, 국립공원과 연계된 교구본사들은 과연 이 재원을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 자문해 봐야 한다. 이 부를 어떻게 관리하고 운용하느냐에 새 집행부의 성패가 달려 있고, 아울러 향후 불교의 사활이 걸려 있다.

이제까지 이 정재들은 주로 하드웨어에 투자되었다. 전각을 늘이고 단청을 새로 칠하는데 쓰였다는 말이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이다. 인재를 키우고 경전을 현대화하며, 미래정보화에 자원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개인적 치부나 공연한 낭비로 정재가 새어나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관건은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합리성이다.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을 감시하는데 인색할 이유가 없다. 종법 또한 이를 위해 사찰운영위를 명문화하고 있는데 웬일인지 유야무야되었다.

이 모든 일은 여법하게 자신을 비우는 회향(回向)을 통해서만 기약할 수 있다. 새 총무원장을 비롯한 조계종 집행부에게 비상한 각오를 다져달라는 당부도 간절하게 되겠다.

# '21세기준비' 한목소리 각종단·단체 새해다짐

불교계 각 종단과 단체들이 새해 업무를 시작하며 새로운 희망을 다졌다.

경제난을 슬기롭게 극복하며 21세기를 맞을 준비에 매진한다는 것이 각 종단과 단체의 새해 다짐이다.

조계종 총무원장은 4일 오전 9시 조계사 법당에서 시무식을 갖고 빠른 시일내에 종단 화합과 안정을 이룰 것을 서원했다. 총무원장 고산스님은 업무를 시작하며 종무원들에게 "종단적 아픔을 속히 치유하고 온 국민이 사랑하는 불교가 될 수 있도록 어느 때 보다 정진하는 자세

를 갖자"고 당부했다. 태고종도 6일 11시 서울 태고사 종무처에서 총무원장 인곡스님 등 종무원 7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시무식을 갖고 새해 사업으로 상징된 사랑들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대한불교진흥회는 4일 신년하례식을 겸한 시무식에서 불교발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여법히 진행해 나간다는 의지를 다졌다. 동국대학교도 4일 학술문화관 대강전에서 시무식을 가졌다. 송석구 총장은 시무식에서 "99년은 학교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해가 되어야 한다"

고 강조하고 학내 구성원의 화합과 단결을 당부했다. 불교방송과 불교TV도 4일 신년하례식을 통해 재정구조의 개선과 미디어 포교사의 역할 수행에 더욱 매진한다는 마음을 모았다. 4일 신년법회를 가진 우리 선우는 "겸허한 반성과 건실한 수행으로 거듭나자"고 다짐했다.

부산불교연합회와 부산불교신도회는 6일 신년하례회를 함께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부산지역 불자들은 개인의 건강과 수행활동을 통해 지역 불교가 활성화 되도록 하자고 원력을



대구 경북지역 스님·신행단체장들은 6일 신년 상견례를 갖고 새로운 희망을 다짐했다.

모았다. 대구 경북지역 스님과 신행단체장 150여명도 6일 신년 상견례를 갖고 갈등과 반목을 일소하고 지역 불심을 통합해 한국불교 흥흥에 일조할 것을 발원했다.

전북삼연연합회는 6일 3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가한 가운데 신년하례회를 봉행했다. 참석자들은 올 한해 동안 실직자와 무의탁 노인, 북한어린이 등기 모금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대중속으로 한발 더 다가가는 불교

를 만들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날부터 모금활동에 들어갔다. 제주불교총연합회와 제주불교관음클럽도 6일 신년하례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지역내 5개종단 대표와 신행단체장, 우

근민 제주도지사 등 기관장들이 참가한 이날 법회에서 제주지역 불자들은 "화합과 제주불교 증흥의 해를 다져 희망의 2천년을 맞이하자"고 서원했다.

함동취재팀 (ytlm@buddhapia.com)

## 정화회의 총무원장 정영스님 선출

부외장에 현수스님 선출

정화개혁회의는 6일 서울양재동 구문사에서 67명의 정화회의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3차 본회의를 열어 정영스님(갑사 조실)을 총무원장으로 선출했다. 현수스님은 8일 봉도사를 방문한 정영스님에게 총무원장 임명장을 수여했다.

정화회의는 조계사 건너편 서흥빌딩10층에 사무실을 개설하기로 했으며, 정화회의의 부외장에 현수스님을 선출했다. 집행부 인선은 총무원장 정영스님과 상임위원장 월탄스님이 협의해 구성하기로 했다.

정화회의의 총무원장으로 선출된 정영스님은 7일 기자회견에서 "일부 권력승들에 의해 종정교사와 원로들의 의견이 묵살되는 현실에서 더 이상 신중을 이룰 수 없었다"며 "수행과 법에 충실한 종단이 구현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1923년 경남 창원생인 정영스님은 42년 만공스님을 은사로 득도하고, 47년 상월스님을 계

후기를 당부했다. 현근스님은 이 글에서 "이번 일(조계종 사태)을 계기로 마음을 비우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한다"며 조계사 신도들에게 "종단 안정화와 신심 배양에 힘쓰며 조계사를 이끌어 갈 새 스님들을 여법하게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임연태 기자

임연태 기자

임연태 기자

임연태 기자

임연태 기자

임연태 기자

임연태 기자

임연태 기자

임연태 기자

임연태 기자

임연태 기자

임연태 기자

임연태 기자

임연태 기자

임연태 기자

임연태 기자

임연태 기자

임연태 기자

임연태 기자

임연태 기자

임연태 기자

임연태 기자

임연태 기자

임연태 기자

임연태 기자

임연태 기자

임연태 기자

임연태 기자

임연태 기자

임연태 기자

임연태 기자

임연태 기자

임연태 기자

임연태 기자

임연태 기자

임연태 기자

임연태 기자

임연태 기자

임연태 기자

임연태 기자

임연태 기자

임연태 기자

임연태 기자

## 조계종 인사

- 총무부장-원택스님
- 기획실장-만성스님
- 재무부장-일철스님
- 문화부장-양산스님
- 사회부장-성조스님
- 호법부장-종고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은 4일과 6일 총무원 각부서의 부장과 실장 국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 임명장을 수여했다. 총무부장 원택스님은 72년 해인사에서 성철스님을 은사로 득도, 경복고와 연세대 정외과를 졸업했다. 백련문화재단 이사장, 불교출판인협회회장 등을 맡고 있다. 기획실장 만성스님은 68년 선암사에서 법침스님을 은사로 득도, 동국대 승가학과를 졸업했다. 총무원 포교국장, 사회국장, 기획국장, 조계사 교

무를 역임했다. 재무부장 일철스님은 75년 송광사에서 보성스님을 은사로 득도해 제방 선원에서 수행했다. 문화부장 양산스님은 63년 진경스님을 은사로 득도했으며 현재 사회복지시설 양지마을의 시설장을 맡고 있다. 사회부장 성조스님은 63년 정대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호법부장에 추천된 종고스님은 69년 도광스님을 은사로 득도해 석천사주지, 화엄사 총무, 재무국장을 거쳐 현재 천은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다. 각 국장은 다음과 같다.

총무국장=종현스님(쌍계사) 사서차장=효찬스님(쌍계사) 기획국장=법승스님(백양사) 감사국장=정오스님(해인사) 재정국장=진효스님(범어사) 사업국장=정인스님(범어사) 문화국장=덕신스님(동화사) 사회국장=설옹스님(신흥사) 호법국장=정혜스님(동화사) 조사국장=석천스님(수덕사) 상임감찰=자현스님(봉선사)·적연스님(불국사)·운광스님(월정사)·심우스님(해인사). ▲조계사 부주지=지홍(전 총무원 기획실장) 임연태 기자 (ytlm@buddhapia.com)

## "종단안정-화합에 힘 보태자"

법장·현근스님 입장박혀

조계종 제7교구본사 수덕사 주지 법장스님(교구본사주지연합회회장)은 구랍 31일 "고산스님을 중심으로 하는 새집행부가 하루 빨리 안정과 화합의 자리를 찾도록 본사주지연합회와 수덕사는 미력이나마 보태겠다"고 밝혔다. 법장스님은 이날 '해명서'를 발표 "일부 언론에 의해 수덕사

가 정화개혁회의의 측이라는 보도에 대해 유감스럽기 그지 없다"며 "이는 본사주지연합회장으로 종단과 불교가 상처를 덜어내는 길을 모색하던 나의 뜻과 본사주지연합회, 수덕사를 삼히 왜곡한 것"이라 강조했다. 전 조계사주지 현근스님도 이날 '조계사 신도 여러분께'란 글을 통해 종단 안정에 앞장서

주기를 당부했다. 현근스님은 이 글에서 "이번 일(조계종 사태)을 계기로 마음을 비우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한다"며 조계사 신도들에게 "종단 안정화와 신심 배양에 힘쓰며 조계사를 이끌어 갈 새 스님들을 여법하게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임연태 기자

## 조계종 제7교구본사 수덕사 주지 법장스님(교구본사주지연합회회장)은 구랍 31일 "고산스님을 중심으로 하는 새집행부가 하루 빨리 안정과 화합의 자리를 찾도록 본사주지연합회와 수덕사는 미력이나마 보태겠다"고 밝혔다.

법장스님은 이날 '해명서'를 발표 "일부 언론에 의해 수덕사

를 찾도록 본사주지연합회와 수덕사는 미력이나마 보태겠다"고 밝혔다.

법장스님은 이날 '해명서'를 발표 "일부 언론에 의해 수덕사

를 찾도록 본사주지연합회와 수덕사는 미력이나마 보태겠다"고 밝혔다.

법장스님은 이날 '해명서'를 발표 "일부 언론에 의해 수덕사

를 찾도록 본사주지연합회와 수덕사는 미력이나마 보태겠다"고 밝혔다.

법장스님은 이날 '해명서'를 발표 "일부 언론에 의해 수덕사

를 찾도록 본사주지연합회와 수덕사는 미력이나마 보태겠다"고 밝혔다.

법장스님은 이날 '해명서'를 발표 "일부 언론에 의해 수덕사

를 찾도록 본사주지연합회와 수덕사는 미력이나마 보태겠다"고 밝혔다.

법장스님은 이날 '해명서'를 발표 "일부 언론에 의해 수덕사

를 찾도록 본사주지연합회와 수덕사는 미력이나마 보태겠다"고 밝혔다.

법장스님은 이날 '해명서'를 발표 "일부 언론에 의해 수덕사

를 찾도록 본사주지연합회와 수덕사는 미력이나마 보태겠다"고 밝혔다.

법장스님은 이날 '해명서'를 발표 "일부 언론에 의해 수덕사

를 찾도록 본사주지연합회와 수덕사는 미력이나마 보태겠다"고 밝혔다.

법장스님은 이날 '해명서'를 발표 "일부 언론에 의해 수덕사

## 현대만평



밀레니엄버그 없이...

# 설 립 공 고 (1)

사회교육법 제2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불교법사 사회교육원 등록 제2호(1998.8.20) 및 교육원정관 제2장 6조 3항에 의거 법제고시위원회가 설립되었음을 공고함.

1999. 1. 7.

## 법제고시 최고위원 대승왕 박 청 하 법왕 예하 법제고시 명예위원 승 왕 최 만 선 대화상

- |     |      |       |     |    |       |       |          |
|-----|------|-------|-----|----|-------|-------|----------|
| 위원장 | 삼장법사 | 석 동 암 | 대승정 |    |       |       |          |
| 위원  | 의 료  | 서 주 범 | 대화상 | 위원 | 의 천   | 최 상 복 | 대화상      |
| 위원  | 동 원  | 김 복 연 | 대화상 | 위원 | 혜 철   | 이 병 출 | 대화상      |
| 위원  | 동 진  | 박 형 규 | 대화상 | 위원 | 묘 산   | 최 복 수 | 교육원장     |
| 위원  | 청 용  | 김 범 열 | 대화상 | 위원 | 법 왕 자 | 김 소 부 | 승왕형 신문사장 |

주소:울산광역시 남구 무거1동 1238-9 (기원정사)  
\* 초종파 대승정, 삼장법사, 대종사, 경사, 율사, 논사, 법사, 포교사 등 법위에 관한 문의전화 (052)249-9988, 248-3119

## 불교법사 사회교육원 법제고시 위원회

위원장 삼장법사 석 동 암 · 사무총장 법왕자 김 소 부

## 공 고 (2)

당 법제고시위원회는 1998.12.17일 부산 국제신문 대강당에서 개최된 바 있는 국난극복 희망찬 나라건설 기원 대법회의 요청으로 고시위원회의 소정의 과정을 거쳐 용화불교 교령 김 범 열 대화상에게 국내에서 처음으로 「삼장법사」 법위를 수여하였기에 이를 공고하며 불교신도 여러분께서는 삼장법사에게 최고의 존경과 경의를 표하시길 알려 드립니다.

불교 법사 사회교육원 법제 고시위원회  
위원장 석 동 암